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8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불확실한 종전 협상..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 미국 증시 최고치 경신 후 반락: 다우 -0.63%, 나스닥 -0.13%
- 미국-이란 협상 불확실성 부각, 유가·주가지수·금리 변동성 확대
- 주간 고용 지표 견조..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약화

Summary

미국증시 하락: 나스닥·S&P500, 장 중 최고가 찍고 반락

5월 7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전일에 이어 종전 합의 기대감을 반영하며 상승 출발했지만 이란에서 그 결과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전해지며 국제유가가 낙폭을 축소하자 일제히 하락 전환.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 중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했지만 반락해 약세 마감. 전일까지 급등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차익 매물에 약세로 돌아선 점도 시장 하락의 한 요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63%% 하락한 49,596.97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38% 하락한 7,337.11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13% 하락한 25,806.196에 거래를 마침. 중소형주 지수 러셀2천 지수도 1.63% 하락 마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78% 하락한 17.08에 마감. .

(다우 -0.63%, 나스닥 -0.13%, S&P500 -0.38%, 러셀2000 -1.63%)

미국-이란 종전 합의 불확실성 대두

국제유가는 3거래일째 하락했지만 장 중 큰 폭의 변동성을 기록함.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한 때 배럴당 9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이후 낙폭을 줄여 전장 대비 0.3% 하락한 배럴당 94.81달러에 마감함.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잡음에 따라 변동성을 확대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 초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재개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다만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이란 내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 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현실적인 계획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여전히 관련 메시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측에 어떠한 답변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함. 이는 이란 내부의 종전 합의와 해협 개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함. 실제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도 3~4개월 버틸 수 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문건을 보도하며 ‘이는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 라고 평가하기도. 관련해 WSJ는 양국 간 긴장이 시장 기대와 달리 여전히 고조돼 있으며 향후 페르시아만과 레바논 지역에서의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보도.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

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을 향해 "상투적인 가짜 악시오스 작전으로 되돌아갔다"며 협상 진전 전망을 일축함.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 초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재개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명명된 이 계획은 해협 내 좌초된 선박을 미군의 지원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이란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한 미사일 공격도 발생했었음.

한편 장 마감 이후 이란 매체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군사 행동에 따른 폭음이 관측됐다고 보도.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으며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이란군과 적군의 교전 중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국영 방송인 IRIB는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의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며 미군 함정이 미사일의 표적이었다고 보도. 이에 유가 선물 반등.

개별 기업 변동성도 확대..변수는 '실적'

개별 기업들도 실적 희비에 따라 변동성을 키움. 전일 AMD가 실적 호조와 강력한 가이던스로 급등했던 반면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ARM 홀딩스는 다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이 날 급락했고, 글로벌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 포티넷은 연간 매출 전망치 상향과 함께 급등. 클라우드 보안 기업 데이터독은 호실적과 연간 실적 가이던스 상향을 반영해 급등. 피트니스 체인 플래닛 피트니스는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하며 급락했고 맥도날드는 실적 발표 후 상승했지만 쉐이크쉑은 영업손실과 함께 급락. 포티넷이 실적 발표 이후 급등했고 패슬리는 급락.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7거래일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을 확인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 20% 이상 급등. 대체로 실적 결과에 따른 주가의 반응 강도가 커짐.

주간 고용 안정..기대 인플레는 상승

경제지표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됨.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건으로 집계돼 한 주 전에 비해 1만건 증가했다고 밝힘.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으며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76만 6천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1만건 감소함. 이는 지난 2024년 4월 이후 2년래 최저 수준. 현지시각 8일 4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시장은 현재 비농업 부문 월간 고용 증가폭이 두 달 연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와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등이 '다음 조치가 금리 인하일 것이라는 전제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연준의 성명서 문구를 수정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함.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소비자기대조사를 발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집계돼 전달 기록했던 3.4% 대비 0.2%p 상승. 다만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으로 향후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1%,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0%로 각각 전달 수준에 머무름. 보고서는 최근 연료비 급등이 가계 예산을 압박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 다만 소비자들은 향후 휘발유 가격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향후 1년간 휘발유 가격 상승률 전망치는 5.1%로 집계돼 전달의 9.4% 대비 크게 하락함.

한편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악화됐으며 신용 여건 전망도 부정적으로 변화, 고용시장 전망도 다소 비관적으로 움직임.

특징종목

반도체, 일단 숨고르기

전일까지 급등세로 시장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이 날은 대체로 쉬어감. 브로드컴(-3.03%)이 오픈AI와 2025년 맺었던 칩 계약에 있어 자금 조달 문제가 대두됐다는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의 보도 이후 낙폭을 확대했고, 전일 18% 급등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반겼던 AMD(-3.07%) 역시 이 날은 사흘만에 약세 전환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2.99%), 인텔(-3.00%), 램리서치(-3.58%),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4.20%), 샌디스크(-4.97%), 웨스턴 디지털(-3.98%) 등 관련 밸류체인 내 대부분 종목이 하락. 다만 퀄컴(+5.18%)은 기대 이상의 실적에 더해 2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하면서 주가 재평가 움직임 속에 상승세를 유지함.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으며 엔비디아(+1.77%) 역시 오는 14~15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애플, 엑슨 모빌, 보잉, 퀄컴 등과 함께 CEO가 수행단으로 초청됐다는 소식이 있었음.

이번 분기 50% 가까이 상승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이 날 2%대 하락으로 쉬어감.

사이버 보안 중심 소프트웨어 강세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사이버 보안주 포티넷(+20.03%)이 이 날 급등하며 전반적인 보안주 강세를 견인함. 포티넷은 전분기 시장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으며 연간 수주액 가이던스를 종전 84억~86억 달러에서 89억~91억 달러로 상향했으며 이와 함께 올해 연간 매출 전망도 기존 77억~79억 달러로 상향함.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보안과 네트워킹의 지속적인 융합을 포함한 요인들이 제품 매출과 서비스 청구액 추세, 전망을 계속해서 개선세로 이끌고 있다”며 “랜섬웨어와 국가 주도 사이버 공격 활동의 고조 및 빠른 디지털화에 힘입어 강력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한편 클라우드 보안 기업 데이터독(+31.33%)도 실적 발표 이후 급등. AI 도입 확산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 제품 수요 증가가 실적 호조를 이끌어 전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고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도 기존 40억 6천만 달러~41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43억 달러~43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상향함. 연간 조정 EPS 전망치도 상향. 회사의 최고 경

영자(CEO)는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고객사들이 현대적인 크라우드 기반의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팔로앨토 네트웍스(+7.00%), 크라우드스트라이크(+8.04%), 옥타(+4.44%), 지스케일러(+10.06%) 등 이외 사이버 보안주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

보안주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크게 완화되는 흐름. 인튜이트(+4.69%), 서비스나우(+5.10%), 세일스포스(+2.84%), 어도비(+2.53%), 워크데이(+6.73%).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 패슬리(-38.23%)는 전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음에도 가이던스가 월가 기대를 하회해 폭락.

한편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기업 아카마이 테크놀로지(-4.34%)는 이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에서 7거래일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마감 후 발표한 실적을 재료 삼아 시간외 거래에서 재차 20% 이상 급반등.

이외 특징주-중소형주 변동성 확대

가전 업체 월풀(-11.91%)은 연간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한 여파로 급락. "이란 전쟁으로 2월 말과 3월 미국 소비자 신뢰가 붕괴해 경기 침체 수준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힘.

코치 모회사 태피스트리(-12.30%)는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음에도 사흘만에 하락 전환해 낙폭을 확대했으며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2.01%)는 2분기 주문 전망을 낙관적으로 제시하자 상승. 특수 화학 업체 앨버말(+2.98%)은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가운데 상승했고 안경 업체 와비파커(+23.47%)는 1분기 매출을 시장 기대 이상으로 공개하며 급등.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턴 인터랙티브(+8.85%)는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웃돌자 크게 상승했고 햄버거 체인 쉐이크쉑(-28.26%)은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260만 달러 영업 손실까지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자 급락. 양자 컴퓨팅 업체 아이온큐(-9.30%)는 1분기 조정 EBITDA 손실이 예상을 웃돌자 하락.

네오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6.62%)는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급락. 데이터센터 구축 자금 조달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조달해온 코어위브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자본 지출 예상치를 또 상향 조정했고 2분기 매출 목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 대비 저조한 수준으로 제시. 네비우스(-5.29%)도 시간외에서 동반 약세.

로켓랩(-7.17%)은 마감 이후 시장 예상을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데다 이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며 2분기 또 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사흘만에 반등

미 국채 금리는 이란과의 종전 합의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을 위축시킬 소식들이 전해지자

나타난 국제유가의 낙폭 축소 움직임과 맞물려 초반 하락세를 뒤로 하고 장 중 사흘만에 반등. 일중 저점과 고점의 괴리가 10bp 내외로 장 중 변동성이 컸음. 단기물의 상승폭이 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9bp 상승한 3.919%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3.8bp 상승한 4.393%에 마감.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장 중 급등해 5.1%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안정을 찾았으며 2.7bp 상승한 4.969%를 기록.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 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과 비슷한 70% 초반대로 반영했으며 금리가 25bp 이상 인상될 가능성은 전일 10% 중반대에서 20% 초반대로 높아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7%대로 낮아졌음.

달러 강보합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제한적 상승을 나타냄.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의 제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는 소식 등으로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자 나타난 국제유가의 낙폭 축소와 맞물려 장 중 상승 반전. 전일 대비 0.167% 상승한 98.20을 기록함.

유로-달러 환율은 1.1733달러를 기록해 전일 대비 0.12% 하락. 유럽중앙은행(ECB)의 이자벨 슈나벨 집행이사는 "에너지 가격 충격이 확산된다면 중기적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2차 파급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 정책 긴축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파운드-달러 환율은 1.3561달러를 기록해 0.232% 하락함.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전장 서울환시 종가(1,454.00) 대비 2원 상승한 1,456.0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00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5.00원 상승한 1,458.00원 기록.

국제유가 낙폭 축소..금값은 상승폭 축소

국제유가는 사흘째 하락.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관망하는 가운데 장 중 이란 강경파 고위 인사의 다소 부정적인 발언이 전해지자 장 중 낙폭은 크게 축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는 전장 대비 0.28% 하락한 배럴당 94.81달러에 거래를 마침. 종가 기준 지난달 24일 이후 최저치.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 속에 오전 장 초반 5% 이상 하락하기도 했던 WTI는 오후 들어 이란 관련 이슈에 대한 경계감으로 1%대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음.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1.32% 반등 마감.

국제 금 가격은 사흘째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유가가 낙폭을 축소한 것과 맞물려 오름폭을 크게 축소.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0.33%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4,710달러에 마감. 장 중 4,775.2달러까지 올라 지난달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름폭 줄여 마감. 7

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3% 이상 상승해 온스당 79달러 후반대에 마감했지만 장 중 고점과 비교하면 2달러 이상 하락.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